

보성 ‘3·3·3 전략’…군민 밀착형 정책 실현 ‘구체화’

민선8기3주년

3대 SOC·3가지 모델·365일 체감 군정
철도·복합센터·해양관광 등 인프라 확충

보성군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3·3·3 전략’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군정 성과를 구체화하고 있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3대 SOC’, ‘3가지 보성형 모델’, ‘365일 체감 군정’으로 구성된 전략을 바탕으로 교통·생활·산업 기반 확충과 군민 밀착형 정책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8기의 핵심 변화는 실생활과 밀접한 핵

심 인프라 확대다. 첫째, 철도 기반 교통 혁신으로 경전선(광주-순천), 남해선(보성-목포) 전철화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특히 보성읍과 벌교읍에 정착하는 KTX-이음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약 2시간30분, 부산까지는 2시간 내 도달이 가능해져 지역 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된다.

둘째, 도시 기반 생활 SOC 확충이다. 수영장, 볼링장, 영화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서는 ‘보성군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올해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벌교문화복합센터’도 순조롭게 건립 중이다.

셋째, 산업 기반 SOC 확대로 ‘제2조성농공단

지’ 신규 조성, ‘조성·미력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벌교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완성형 보성’은 민선 7기부터 유치한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 시기로, 도시가스 공급, 복합센터 건립, 전철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현실화됐다. 종합 정령도 3년 연속 1등급, 적극행정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행정 신뢰도도 높다.

‘미래형 보성’은 울포해양복합센터(총사업비 484억원, 2026년 완공)를 중심으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실내서핑장, 국내 최장 길이 41.5m 다이빙풀 등 특화시설과 함께 생태탐방로드, 울포 프

롭나드, 여자만 해양테마공원 등이 추진 중이다.

‘현장형 보성’은 군민이 직접 체험하는 정책이다. 백내장 수술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튼나·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100원 버스 등 촘촘한 복지정책이 일상 속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민선 8기 군정은 군민이 365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향하며 ‘보성600’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소통600’은 군수가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48시간 내 회신하는 시스템으로, 1년간 601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민생600’은 전 군민에게 보성사랑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복지600’과 ‘의료600’을 통해

세탁지원, 예방접종 등 생애주기별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민선 8기 5대 공약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복지행정, 농림축산업, 문화관광, 안전지역경제, 권역별 정주여건 등 전 분야에서 총 157건, 2천68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확보했다.

특히 그동안 청정어장 재생, 보성통합대축제, 태백산맥 테마파크, 하수도 정비, 울포항 어촌활력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도 추진 중이다.

김철우(사진) 보성군수는 “민선 8기 3년은 군민과 함께 쉽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에도 군민과 함께 보성의 내일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 세계 최초 가루미 증류주 ‘네오 40’ 출시

최강록 셰프 참여·시향가 개발

가루쌀 생쌀발효·저탄소 제법

곡성군이 세계 최초로 가루미(바로미2) 쌀을 원료로 한 프리미엄 증류주 ‘네오(NEO) 40’를 출시했다.

30일 곡성군에 따르면 네오 40은 전통 문헌인 ‘고사촬요’에 기록된 생쌀 발효법을 현대적으로 복원해 만든 술로, 쌀을 불리지 않고 곧바로 가루로 빻는 친환경 저탄소 방식이 적용됐다.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쌀 고유의 풍

미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00% 쌀로 빻은 네오 40은 순수하고 고소한 맛, 부드러운 질감, 섬세한 마무리를 자랑하며, 은은한 아로마 향과 조화로운 단맛이 깔끔하게 어우러진다.

이번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시향가의 양숙희 대표가 2021년부터 농식품부 및 농진청과 함께 진행한 가루미 발효 프로젝트의 성과로, 수년간의 레시피 개발과 맛·향 균형 조정 끝에 완성됐다.

또 미식가로 유명한 최강록 셰프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다양한 블렌딩과 테이스팅을 거쳐 요리와 어울리는 세련된 패키징을 구현했다.

네오 40은 카카오 선물하기, 우리술한잔 등 온라인 플랫폼과 롯데마트 보틀버거(서울역·잠실·광주상무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양숙희 시향가 대표는 “네오 40을 통해 곡성 유기농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양곡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네오 40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통주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곡성산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은 지난 27일 구북구 군수, 지역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화순군 제공>

주민공동체 공간 ‘화순 어울림센터’ 준공

472억 투입…체육관·문화센터 등 조성

화순군은 30일 “지난 27일 화순 어울림센터 준공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구북구 화순군수를 비롯해 지역 의원,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순 어울림센터는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교육·문

화·체육·복지 기능을 두루 갖춘 다목적 시설이다.

화순 어울림센터는 총사업비 472억원을 투입해 지상 6층, 연 면적 1만8천977㎡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아울림 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마을혁신센터 ▲책이랑 어울림 도서관 ▲여성하모니센터 ▲통합 일자리고용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다.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 청장은 “오랫동안 기

다러운 공간이 드디어 완공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이곳이 주민들이 자주 찾고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북구 군수는 “화순 어울림센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될 공간”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거점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순군은 어울림센터를 기반으로 많은 입주 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문화 콘텐츠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농기계임대사업 전국 1위’ 장성, 사업소 남부본소 준공

38종 71대 구비…500여 농가 수혜

장성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본소 준공식을 갖고 남부권 임대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남부본소(남면 월곡리 1354번지)는 국비 4억5천만원을 포함, 14억 5천만원을 투입해 486㎡ 규모로 건립됐다. 농기계보관장고와 임대농기계 38종 71대를 갖췄다.

〈사진〉

주요 임대기종은 농가 수요가 큰 승용제초기,

굴삭기, 보행관리기, 콩탈곡기 등이다.

농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장성을 본소까지 찾아와야 했던 남부권 500여 농가의 불편이 해소됐다. 영농시간 단축, 농업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본소·서부·북부에 이은 남부본소 준공으로, 이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내실 있는 농정 추진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 소상공인 금융지원 접수

순천시는 30일 “고금리 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3분기 금융지원 신청을 7월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최대 3천만원 한도 보증대출 시 연 5% 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원 상당의 이자 비용이 절감돼,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 자금 지원은 연 150억원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상반기 110억원의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잔여 재원을 활용해 40억원 규모의 추가 용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폭염에 대비해 접수 시간이 앞당겨진 만큼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순천=정기 기자



왼쪽부터 곡은주 조직위 유치협력부장, 김종기 조직위 사무총장,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 박철주 전남도 국제관계대사가 2026여수세계세섬박람회에 공식 참가를 결정하고 참가 의향서를 공유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재>여수세계세섬박람회조직위원회 제공

페루, ‘여수세계세섬박람회’ 공식 참가 결정

중남미 참가 가능성 ↑

남아메리카 페루가 2026여수세계세섬박람회에 공식 참가를 결정했다.

30일 (재)여수세계세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가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참가 의향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3천km에 달하는 긴 태평양 해안선을 보유한 나라로, ‘작은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바예스타 섬, 티티카카 호수의 우로스 섬 등 섬 문화와 해양 생태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참가 결정을 통해 페루는 자국의 풍부한 섬 자원과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며 국가의 날 행사로 운영되는 ‘페루의 날’에 페루 전통 음악 공연단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

사는 “2026여수세계세섬박람회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세섬박람회를 통해 페루가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섬 자원의 다양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기 2026여수세계세섬박람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페루의 참가 결정은 중남미 국가들의 참가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편 조직위는 페루를 포함해 필리핀, 팔라우, 일본, 베트남 5개국의 참가를 확정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세네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14개국과 참가를 협의 중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 산동면민 ‘지리산 온천관광단지 위기 극복 촉구’

환경부에 지역 여건·정책 전환 등 요구

구례군 산동면민 주민들이 침체된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30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산동오일시장에서 300여명의 산동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침체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이들은 환경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국립공원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과 지역 주민 참여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동면민들은 15년 전 제정된 국립공원 정책이 현재의 지역 현실과 관광 수요, 교통약자 접근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부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리산 온천관광단지의 침체가 지역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관광 인프라 조성과 접근성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례군은 산동면 온천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27층 규모 골프장 조성, 케이블카 설치, 나들이 워터파크 시범 운영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 부진과 환경부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은 환경부의 반려로 무산됐고, 온천관광단지의 조성률이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